

원자재값 '천정부지'...광주·전남 레미콘 업체들 '벼랑 끝'

광주·전남 44개 업체...납품단가 원자재 인상분 반영 20% 인상 촉구 "납품 할수록 손해"...업계 '납품중단' 검토에 건설현장 쫓겨온 우려도

광주·전남권 레미콘업계에 위기감이 감돈다.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를 포함해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지만, 레미콘을 납품받는 건설업체는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의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올해 전기요금도 오르고, 작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까지 겹쳐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레미콘업체는 납품단가에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줄길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역 단가 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레미콘업체가 건설업체와의 협상에

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레미콘업계는 수도권 업체와의 인상 폭 차이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6일 광주·전남권(광주·나주·장성·담양·화순·곡성·영광·함평)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원가의 33%를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이 최근 5.9% 올랐다. 이 밖에 골재와 모래, 4.3%, 운반비 1.3%, 용차비 1.5%, 혼화제 0.5%, 현장요구배합 2.3%, 고정비 4%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태다.

이처럼 레미콘의 원료들이 모두 오르면서 광주·전남권 8개 지역 44개 업체는 레미콘 납품단가 20%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당 8만6700원에서 10만1700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가격 인상이 없으면 지역 상당 수 업체가 자칫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역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4차례에 걸쳐 단가 인상 협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2월16일과 29일 지역 건설사에 레미콘 가격 20% 인상 공문을 발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가격 인상안 협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수도권 레미콘업체와 건설업계 간 인상분 차이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레미콘 공급단가는 지역별 협상을 통해 반영된다. 하지만 지난 3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수도권 레미콘업체와의 협상에서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을 ㎡당 총 8400원

(10.4%) 계단식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광주·전남권 업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무려 ㎡당 6600원 상당이나 차이가 난다.

문제는 연간 출하량이 30만㎡ 이상으로 고정비가 적은 데다, 대규모 업체들이 상당수인 수도권 레미콘 업체와 광주·전남권 업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 업체들은 영세할뿐더러, 연간출하량이 훨씬 적고 고정비가 많아 이익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한 회사당 평균 32만4000㎡를 출하하는 것과 달리 광주·전남권은 9만70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의 출하량이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단가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원재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레미콘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3%

수준을 밑돌고 있는 탓에 광주·전남권에 수도권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납품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역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납품하면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지역 관급공사와 산업건설 현장에 납품 차질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 회사가 경영난 위기에 몰리면서까지 건설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수도권 협상은 시멘트 인상분인 ㎡당 4200원이 너무 과소 책정됐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다수라 똑같이 적용되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25만8000명 타지로 출근한다

근로자 유출 광주 29%·전남 21% 직·주 불일치 유출 소득 6600억

일자리 부족 탓에 광주·전남 지역민 25만8000명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역에 살면서 광주·전남에 직장을 둔 근로자는 19만5000명에 그쳤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도에 직장을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광주 14만4000명·전남 11만4000명 등 2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남에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다른 근로자는 광주 5만7000명·전남 13만8000명 등 19만5000명에 그쳤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비중은 광주가 29.1% (49만5000명 중 14만4000명)에 달하며 전국 17개 사·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근로자 유출 비중 순위는 세종이 54.0%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2위(21.2%)를 차지했다.

반대로 근로자 유입 비중 순위는 광주 13.9%·전남 24.6%로, 전국에서 각각 14위·5위에 들었다.

직·주 불일치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근로소득은 한 달 평균 6600억원이 넘었다.

광주·전남 거주민이 다른 직장에 다니므로 유출되는 근로소득은 월평균 광주 1707억원·전남

4894억원 등 6601억원에 달했다.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는 사·도민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광주 4776억원·전남 3968억원 등 8744억원으로 역외유출 소득액보다 2100억원가량 많았다.

근로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전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고, 광주는 14번째를 차지했다. 역외 유입 근로 소득액 규모는 광주 6위·전남 11위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의 역외 순 유입은 근로자의 역외 순 유출을 의미한다"며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들의 지역 내 생산·소비 활동을 늘리기 위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150장...“대면 거래 줄어 역대 최저”

5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 광주 최근 3년간 1장 발견

카드,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고, 대면 상거래는 축소되면서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50장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176장)보다 26장 감소한 것이며,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위조지폐 발견 수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은은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축소,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에 따른 위조범 조기 검거,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중별로는 5000원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고, 1만원권 43장, 5만원권 23장, 1000원권이 9장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금융기관(118장)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 한은(27장), 개인(5장) 순이었다.

금융기관이 발견(한국은행 제외)한 위조지폐 118장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지폐가 87장으로 약 73.7%를 차지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위조지폐가 지난해

한 장 발견됐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9.86 (+13.77)
↑ 코스닥	716.89 (+5.07)
↑ 금리(국고채 3년)	3.454 (+0.085)
↓ 환율(USD)	1235.30 (-6.00)

권 사회적약자 통합지원단



범죄 피해자 지원 돕는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가운데)은 최근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오른쪽),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 관련 사회적약자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은행 제공>

농협 전남본부,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추진 결의대회

농산물 유통 중심지 구현 등 다짐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호 '비상 2023'을 내걸었다.

전남농협은 최근 화순군 도곡면 스마트팜 농장에서 '비상 2023 전남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전남본부와 화순군지부, 도곡농협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 중심지 구현, 도농 상생 사업 발굴, 사회공헌·ESG

경영 실천, 영농 활동 안정화 기여, 농업인 실익 제고 사업 전개 등을 다짐했다.

또 농축산물 산지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행사가 열린 방울토마토 재배 농장에서 일손을 도왔다.

박종탁 전남본부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 농업의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가의 실익 제고와 활력 넘치는 전남의 미래농업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